

ISUZU ELF FORWARD



! 인천서 완벽 정비 서비스 제공한다. 이스즈, 첫 직영 서비스센터 구축



! 이스즈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지역	전화	센터명
인천	032-710-024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
아이비오토테크	032-888-1662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
명진자동차	031-977-00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63
자일일산서비스	031-994-14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848 (덕이동)
스카이모터스	031-998-5809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40, 940-1
오일타운	031-222-87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21
광명자동차공업	031-322-497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90
포천자동차검사소	031-544-443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밭로19
삼성특장	031-366-3667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회화로 183-50
대전종합모터스	042-935-21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 2길29
대전	043-234-19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4길 5
일급서울정비공업사	043-421-3309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67
한결공업사	041-352-302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872-40
조선모터스	054-973-9934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887
G&B CV	055-366-4972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31
양산종합정비공장	055-586-1042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철로 219
철성1급종합정비	051-831-4500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83
신항자동차	063-545-6660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4길 159
유로오토	062-959-98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66
국동오토모빌스	061-681-0811	전남 여수시 울촌면 서부로 1876
오성모터스	033-653-1503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534번안길 12
진영공업사	033-747-3300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807
순호자동차공업사	064-799-4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향풍로 505
제주		

! 이스즈 경정비 서비스센터 (판금·도장 제외)

지역	전화	센터명
인천	032-568-644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01번길 14
경기	031-566-222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75
충청	041-576-340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0길 69-2
경상	054-821-511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로 11

판매 및 시승문의
080-890-8585

Trucks for life
ISUZU
www.isuzukorea.com



Trucks

ISUZU | 특집판 |
ELF 2.5T, 3.5T
FORWARD 5T



엘프 3.5T

포워드 5T

엘프 2.5T

- 5톤 포워드 / 최영식 사장
엘프에 반해, 포워드까지 내 손에
- 3.5톤 엘프 / 문길원 사장
엘프에서 '사람 냄새'가 나네요
- 에일특장(주) / 박석희 대표
“이스즈는 그야말로 돈이 되는 트럭!”

이스즈 엘프·포워드 특집판 4호 / 2021. 7

김석주 대표이사 / 엘프 4년과 미래를 말한다
“3.5톤 엘프 누적판매 2,000대 시건문제,
한국 시장 완전 안착·성장 동력 찾았다”
엘프에 3.5톤 엘프 저상과 5톤 포워드 합류
‘조중형·중형 카고 플라인업’ 체제 돌입!



김석주 대표이사/(주)큐로모터스, **ELF** 4년과 미래를 말한다



“3.5톤 엘프 누적판매 2000대 시간문제. 한국 시장 완전 안착·성장 동력 찾았다”

세계적인 상용차 브랜드인 일본 이스즈(ISUZU)의 3.5톤 엘프(ELF)의 누적 판매량이 국내 출시 4년 만에 1,500대를 달성했다. 출시 후 불어닥친 한일간의 정치·경제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내구성 및 안전성 등 오롯이 엘프의 제품력과 서비스품질이 받쳐주면서 이룬 적지 않은 쾌거다.

이러한 성적은 국내 준중형트럭 시장에서 세계 베스트셀러 트럭으로 뽑히는 엘프가 시장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년 7월부터는 이스즈 트럭 국내 공식 판매사인 (주)큐로모터스가 2.5톤 엘프까지 본격적으로 판매할 경우, 엘프의 시장성은 한층 넓고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기와 대형 상용차까지 아우르는
종합 상용차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올해는 3.5톤 엘프의 판매량 회복을 자신하고 있는 큐로모터스. 얼마 전 첫 직영 인천서비스센터를 오픈한데 이어 2.5톤 엘프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엘프 출시 4년 차에 접어든 큐로모터스가 이제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석주 큐로모터스 대표이사는 올해 엘프 누적 판매대수 2,000대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존

이스즈 엘프
총 누적판매 2000대는
내구성과 안전성 등
제품력과 서비스품질이
받쳐주면서 이룬
적지 않은 쾌거다.



3.5톤 엘프를 주축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지난해 출시한 5톤급 포워드에 금명간 2.5톤 엘프 저상트럭까지 가세하면, 월평균 50~60대 안팎의 실적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다.

특히, 그동안 개인 고객 위주에서 최근에는 플릿 고객(Fleet Customer, 대량구매 고객)의 구매 비중이 크게 늘면서 월평균 10대 이상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여기에 김석주 대표의 서비스품질도 판매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에 출고한 엘프 1호차 고객의 수리 내역만 살펴봐도 라도, 총 21회 가량 센터 방문을 하는 동안 소요된 정비 시간은 22시간에 불과했다. 보유 기간을 통틀어 총 정비 시간이 하루가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 소모성인 엔진오일과 필터 교체가 주여서 센터로부터 정비 수익이 안 난다는 불멘소리까지 듣는다.”

그럼에도 큐로모터스는 현재 전국의 주요 물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직영 1곳 등 총 28곳의 서비스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큐로모터스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의지를 내비쳤다. 김석주 대표로부터 이스즈 트럭 4년과 향후 구상을 좀 더 들어봤다.

Q. 이스즈 국내 진출 4년을 평가한다면?

“이스즈의 엘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준중형트럭이다. 내구성과 안전성 등 트럭이 갖춰야 할 기본 사항들에 충실한 트럭으로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고장없이 항상 일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준 결과다.

국내에서는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에 집중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엘프가 제품력과 고장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정치·경제적 대외적인 악조건 하에서도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품 변경에 보수적인 플릿(법인) 고객까지 엘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Q. 신규 라인업 확대가 눈에 띈다.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난해 중순에는 5톤 포워드를 출시했고, 올 7월에는 2.5톤 엘프 저상트럭을 출시한다. 5톤 포워드는 가격과 제품력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트럭이다. 각종 안전사양은 물론, 이스즈의 자랑인 스무더(Smoother) 자동화변속기가 기본 장착돼 이른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제품이기도 하다.

2.5톤 엘프 저상트럭은 화물 상하차의 편리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3.5톤 엘프의 특징점을 모두 흡수한 전략 모델이다. 특히, 비상 자동제어장치와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사양이 장착돼 안전을 중시하는 플릿 고객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1.2톤 픽업트럭인 ‘D-Max(디 맥스)’도 선보여 차종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Q.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속도가 남다르다.

“큐로모터스는 과거 4년이 아닌 앞으로의 40년을 위하여 대고객 차원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질적·양적 확대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전국에 걸쳐 27곳의 서비스센터를 확충한 상태에서 인천에 첫 직영 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비록 제품에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힘써왔다. 고객이 가장 안전한 트럭으로 꼽히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

Q. 큐로모터스의 비전에 대해 말해 달라.

“단기적으로는 회복된 경기 상황과 보충된 라인업 전략에 따라 월 평균 60대 판매고를 올려 올해 말까지 총 누적판매 2,000대를 달성할 것이다. 플릿 고객 대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이후 점유율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차량이 많아지면 서비스품질 향상에도 선순환으로 다가올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은 전기상용차부터 대형 상용차까지 모든 차종을 아우르는 종합 상용차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주)큐로’와의 협업과 이스즈의 협력사인 ‘UD트럭’ 도입 등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큐로모터스가 갖춰온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신규 라인업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 상용차 브랜드 이스즈 트럭 '준중형·중형 카고 풀라인업' 체제로 돌입하다!

세계적인 상용차 브랜드 일본 이스즈의 '2.5톤 엘프 저상트럭'이 7월에 새롭게 출시된다.
이로써 국내에 진출한 이스즈 트럭은 기존의 3.5톤 엘프·5톤 포워드를 더하면서, 준중형급(2.5톤 및 3.5톤) 및 중형급(5톤) 카고트럭 풀라인업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전 세계 No.1 준중형트럭
ELF 3.5톤

이스즈 준중형트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엘프는 1959년 첫 출시 이후 뛰어난 기본기를 바탕으로 일본은 물론 북미 및 동남아시아 시장 등 40여 개국에서 20년 이상 캡오버형 트럭부문 판매대수 1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모델이다.

2017년 9월 국내 상륙한 3.5톤 엘프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이스즈의 기술과 검증받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경쟁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동급 최초 6단 자동화변속기(AMT), 최고 수준의 첨단안전사양 등을 대거 장착해 국내 상용차시장에 새 패러다임을 불러일으켰다.



동급 최고란 바로 이런 것
ELF 2.5톤

7월중 새롭게 출시되는 2.5톤 엘프 저상트럭은 6단 자동화변속기, 디스크 브레이크, 첨단안전장치 등 기존 3.5톤 엘프의 기본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여기에 새롭게 유로6 스텝D 기준을 충족한 이스즈 최신에 디젤엔진이 탑재돼, 동급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에 더해 2.5톤 엘프 저상트럭은 프레임의 지상고를 낮추고, 새시 윤거를 차체에 비해 넓게 설계해 화물중량에 따른 차체의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방 국도와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 도로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수송 본능에 집중한 중형트럭
FORWARD 5톤

1970년에 첫 출시된 포워드(Forward)는 이스즈 트럭 중에서 엘프 다음으로 오랜 구력을 자랑한다. 중형트럭으로 탁월한 연비는 물론, 안정적인 출력 그리고 넉넉한 적재능력으로 유럽산 트럭과 비교해 실용적이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포워드의 지난 2019년 일본 내 판매량은 1만 7,616대로 내수시장 점유율 약 40%를 기록했으며 호주,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4만 3,000여 대를 수출하는 등 글로벌 중형트럭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강력한 화물용 픽업트럭이 온다
D-MAX

적재중량 1.2톤 이스즈의 픽업트럭 'D-맥스(D-MAX)'도 내년 1분기 국내에 선보일 계획으로 몸을 풀고 있다.

승용 기반의 픽업트럭과는 달리 화물전용 픽업트럭으로 준비되고 있는 D-맥스는 카고트럭 전용과 특장시장을 겨냥한 특장용도로 전용으로 공급되거나 개발될 예정이다.

D-맥스는 일본 이스즈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사가 공동 개발한 전략 모델로, 북미 픽업트럭의 대명사 쉐보레 콜로라도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

이스즈 엘프·포워드 4년 발전상

"라인업 확충과 부단한 서비스센터 확충이 성장 모멘텀"





특장용도까지...엘프의 완전 성공신화 쓴다 '3.5톤' 엘프의 새로운 조합 '2.5톤' 뒀다

유로6D 엔진·최고출력 190마력의 강력 성능
엘프 3.5톤급으로 자동변속기·안전사양 두루
강력 액슬과 차체 프레임, 특장작업도 거뜰

국내서 2.5톤 준중형트럭 시장은 카고보다는 리프트를 장착해 가전제품 운반에 사용되거나 냉동탑 등 기업물류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간 영업용 화물차 시장 위주로 공략했던 (주)큐로모터스는 2.5톤 저상트럭으로 물류기업 저변에까지 판로를 확대할 태세다.

동급 최고의 강력 엔진에 친환경성까지

4년 전 국내에 출시된 3.5톤 엘프가 국내 준중형트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다.

2.5톤 엘프 또한 3.5톤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했다. 2.5톤 엘프에 탑재된 엔진은 이스즈의 최신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유로(Euro)6D 5.2ℓ 급 4기통 엔진으로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52kg·m이다. 동급 경쟁차종에 비해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동시에 친환경성마저 확보했다.

7월부터 본격 출시되는 이스즈의 '2.5톤 엘프 저상트럭', 2.5톤 엘프는 3.5톤 엘프, 5톤 포워드에 이은 큐로모터스의 세 번째 이스즈 카고트럭 라인업이다. 이스즈 엘프 트럭의 성공신화를 담보해줄 막강 지원군이기도 하다.

엘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변속기는 스무더(Smoother) 6단 자동변속기 또는 6단 수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디스크 브레이크 역시 적용됐다.

기존에 출시됐던 엘프와 비교해 적재중량은 줄었지만 파워트레인 성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엘프는 경쟁 모델 대비 출력과 내구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차량 무게가 덜 나가는 2.5톤 엘프에서는 이 같은 강점이 더욱 극대화된다.

또한, 대형트럭에서나 볼 법했던 첨단 안전사양이 2.5톤 엘프에 고스란히 적용됐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을 비롯해 히터 기능을 갖춘 연료필터가 새롭게 탑재됐으며 이전 3.5톤에 적용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잠김방지시스템(ABS), 전자식제동력분배시스템(EBD), 미끄럼방지조절장치(ASR), 전자식안전성제어장치(ESC) 등도 대거 지원된다.



안전성을 극대화한 2.5톤 엘프의 후측 윤거



시인성이 뛰어난 운전석

변속기 타입		AMT(자동화 6단)
차체(mm)	장/폭/고	6,150/2,180/2,245
적재함(mm)	장/폭/고	4,275/2,070/380
축간거리(mm)		3,365
윤거 전/후(mm)		1,680/1,650
최대적재량(kg)		2,500
엔진		4HK1-TCS 4기통
배기량(ℓ)		5,193
최고출력(ps/rpm)		190/2,600
최대토크(kg·m/rpm)		52/1,600
연료탱크 용량(ℓ)		100
브레이크(전/후)		디스크 브레이크
타이어(전/후)		215/75R 16C

팔방미인 2.5톤 엘프, 특장에도 최적화

2.5톤 엘프는 타이어 휠 직경을 감소하는 동시에 프레임 지상고를 낮추고, 적재함 내측 높이를 높여 탑차 및 카고트럭으로 활용 시 화물의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차량의 무게 중심에 영향을 미치는 새시 윤거가 차체 대비 넓게 확장시켜, 주행 중 화물 무게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했으며, 급격한 코너에서도 롤링 현상에 따른 전복 위험성을 낮춰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내 운송환경에 맞는 높은 허용중량의 액슬을 탑재했으며, 차량의 뼈대라 할 수 있는 프레임은 고장력 특수철강을 기반으로 높은 강도와 탄성을 자랑한다. 이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특장장비가 탑재되더라도 차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카고트럭에서부터, 각종 특장용도까지 팔방미인 2.5톤 엘프 시대가 열린 것이다.

ELF



첨단안전장치로 중무장한 5톤 포워드



넓고 시계성이 우수한 운전공간

화물차 시장의 中原을 책임진다 이수즈 '포워드' 답게 최강 침투력 기대

〈forward: 공격수〉

최고출력 240마력 고효율 모델로 '가성비' 갑
트럭 본연의 역할과 실용성으로 국내서 '호평'
차체의 내구성·단순성으로 특장시장서 인기↑

5톤 포워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뛰어난 특장용 이성과 내구성, 작은 캡 등을 무기로 특장시장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상용차 시장에는 막강한 경쟁 모델들이 준비해 있지만, 포워드만의 특장시장을 겨냥해 전혀 주목되지 않는 모습이다.

경제성·내구성·실용성 3박자의 조화!

국내서 판매되는 5톤 포워드는 화물차 본연의 수송 본능에 맞춰 충실하게 설계됐다.

포워드에는 240마력의 배기량 5.2ℓ 급 4기통 엔진이라는 경쟁모델과 비교해 비교적 작은 심장이 탑재된다. 하지만 여기에 전자제어식 6단 자동화변속기 '스무더(Smoother)'가 맞물려 답답하지 않는 발군의 성능을 발휘한다.

물론 '경제형 모델'을 표방하는 만큼 빼어난 연비와 적은 요소수 소모량으로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출시 1년여 만에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수즈의 중형트럭 '5톤 포워드'. 뛰어난 경제성과 내구성, 그리고 트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실용성 덕분이라는 평가다. 포워드의 활약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운전석 시트는 독일의 차량 시트 명가 '이스트(ISRI)'사의 에어서스펜션 시트가 적용됐으며, 스티어링 휠 내장 조작 스위치가 새롭게 탑재돼 장거리 운전의 부담을 줄여준다.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동시스템으로는 '폴에어 브레이크'가 탑재됐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경사로밀림방지장치(HSA) 등 필수 안전사양을 탑재했다.

실제로 포워드를 운행 중인 국내 고객들은 포워드를 두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트럭'이라고 평가한다. 불필요한 기능을 줄여 운전 중 조작 범위를 단순화하고, 각종 안전기능과 넓은 시야를 확보해 운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

여기에 이수즈만의 차별화된 운전습관 분석 서비스인 '헬스리포트'를 제공해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시내주행용 최적...특장 시장 '러브콜'

포워드는 카고뿐만 아니라 특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배선과 전자장치 등 차량의 하부구조가 복잡한 트럭은 특장 작업 시 각종 오류가 일어나기 쉬우며, 차체 프레임 강성이 떨어지는 경우 특장을 얹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임이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포워드는 고강도 철강 프레임을 적용해 새시가 튼튼하며 차체하부 구성요소가 단순해 특장 작업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전기장치와 센서가 직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전기 배선 작업이 용이하다.

여기에 경쟁 중형트럭과 비교해 작은 캡 크기와 회전반경을 갖춘 포워드는 냉동·냉장탑차나 이삿짐 사다리차, 활어차 시장 등 시내 및 중·단거리 주행에 필요한 특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가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변속기 타입		AMT(자동화 6단)
차체(mm)	장/폭/고	8,600/2,495/2,570
적재함(mm)	장/폭/고	6,650/2,420/400
축간거리(mm)		4,990
윤거 전/후(mm)		1,800/1,705
최대적재량(kg)		5,000
최대허용 총중량(kg)		14,000
엔진		4HK1-TCH 4기통
배기량(ℓ)		5.193
최고출력(ps/rpm)		240/2,400
최대토크(kg·m/rpm)		78/1,600
연료탱크 용량(ℓ)		140
브레이크(전/후)		폴에어
타이어(전/후)		265/70R 19.5(S/D)



엘프에 반해,
포워드까지 내 손에

최영식 대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적재함이 넓습니다.

자동과 수동 장점 혼합한
스무더까지 익히니
주행도 편하고 향상된
출력을 즐기고 있죠”

엘프를 넘어, 포워드까지 내 동반자

“부피가 크다고요? 포워드가 책임집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만난 최영식 대표(63)는 1994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운송업체를 설립해 27년째 충남 인근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도맡고 있다. 1톤부터 5톤까지 모두 11개의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최 대표. 최근 이스즈 포워드를 구입한 뒤로 직원들의 만족감에 흐뭇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엘프와 맺은 첫 인연, 포워드로도 이어져

최 대표와 포워드의 인연은 이전 엘프와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초 3.5톤 차량이 급했던 최 대표는 부랴부랴 국산 모델을 문의했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각종 트럭을 수소문한 끝에 결국 엘프를 만났다. “처음 이스즈 딜러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계약만 하면 20일 만에 트럭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차량이 급했던 터라 냉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즈 트럭에 폭 빠질 줄은 몰랐죠.”

최 대표가 엘프를 구매한 후, 본인 이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짐을 실어도 풀렁이지 않는 튼튼함에 주행 편의성까지 더해 엘프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에 최 대표는 엘프를 출고한 지 2개월 만에 포워드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트럭 운전엔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기쁘기도 했고 차량의 튼튼함이 체감돼 오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

군요. 현재까지 11개의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데 트럭 수가 많아지니 매년 폐차와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더군요. 이스즈는 그런 부담을 해소해 줄 것 같아 더 큰 톤급의 포워드를 구매했습니다.”

부피짐 신기에 적합...병원에서 운행도 원활해

최 대표에게 포워드의 가장 큰 강점은 ‘넓은 적재함’이다.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적재함이 부피짐을 신기에 적합했고, 다른 회사 모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좋았다.

“국산 모델이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졌지만 저희가 다루는 부피짐을 신기에 적합한 모델을 구매하려면 기본가보다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적재함이 커 가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워드의 넓은 시야와 제동력도 만족 그 이상이였다. 트럭을 몰고 병원에 들어가면 근처 사각지대에 환자를 맞닥뜨리게 될까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포워드의 넓은 시야와 제동력은 그런 걱정을 한결 덜어주었다고.

“병원에 들어가면 주위를 살피며 아주 천천히 트럭을 몰아야 합니다. 환자가 이동하나 조심해야 하고 유사시엔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하죠. 포워드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변을 살피기 용이하고 제동력도 우수해 밀리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 습니다.”



변속기 위력도 실감...‘좋은 제품 널리 알리고파’

최 대표는 포워드를 직접 주행하면서 자동화변속기 ‘스무더’의 매력에 깊게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자동화변속기가 제공하는 주행 편의성을 즐기면서도 출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엔 수동으로 힘 있게 포워드를 운전한다며 자동화변속기의 매력을 어필했다.

“처음 몇몇 직원들은 자동화변속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몇 번 운전해보니 금방 적응했습니다. 평소에는 자동변속기로 편안한 주행을 즐기다가 부피짐을 싣고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수동 기능을 이용해 수동변속기에 걸맞은 출력을 활용하게 되었죠. 요새는 어떻게 자동화변속기가 이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냐며 직원들의 호평이 자자합니다.” 이후, 최 대표는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이스즈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협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스즈 트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아 부산 소재의 폐기물 업체에서도 포워드 구매를 결정했고 경주 업체도 이스즈와 구매 상담에 들어갔다고, 최 대표는 “좋은 제품을 알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포워드를 구매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최 대표는 앞으로도 5톤 트럭을 바꿔야 할 때가 되면 주저 없이 포워드를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웃음이 보기 좋다.”며 함께 미소 짓는 최 대표. 그 모습에선 포워드가 어느새 한 식구가 된 것이다.

사람에 반하고 엘프에 반했지요!

“무겁고 깨지기 쉬운 와인, 엘프가 딱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만난 문길원 사장(64). 그는 10년 넘게 고급 주류(酒類)만을 운송하고 있다.

전주와 부안 등 전북 일대 주류 도매업체가 그의 주 무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물류센터에 도착할 정도로 소문난 '열정맨'인 문 사장은 엘프를 구입한 뒤로, 고장없이 달리고 있고 차로 인해 애를 먹은 적이 없다고 한다.

엘프에서
'사람 냄새'가 나네요

문길원 사장

“주류 운송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주행성이 뛰어나고
침단안전사양 갖춘
3.5톤 엘프 덕에
마음 편히 운전합니다.”



영업사원의 '진솔함'에 반해 구입한 엘프

문 사장이 엘프와 맺은 인연은 어느새 올해로 2년째다. 지난 2019년 봄에 3.5톤 엘프를 구입한 뒤 월 평균 8,000~1만km씩 달려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25만km에 이른다. 출력부터 내구성까지 엘프의 모든 점이 만족스럽다는 문 사장이지만 처음부터 엘프에 이끌렸던 건 아니다. 문 사장은 “영업사원의 인간적인 면모에 반해 엘프 구입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어느 날 이스즈 3.5톤 엘프를 광고하는 현수막을 봤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달리고 있자니 문득 현수막에 적힌 영업사원의 전화번호가 떠오르더군요. 차를 살 것도 아니었지만 대뜸 전화를 걸었어요. 잡담이나 할 요량이었죠. 그런데 이 젊은 영업사원이 무척 씩씩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더군요.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문 사장과 영업사원의 관계는 7개월 동안 이어졌다. 처음에는 문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는 영업사원에서 먼저 전화가 올 정도로 가까워졌다.

대화 주제도 인생사는 이야기로 발전했다. 특히 문 사장 마음에 든 건 영업사원이 차량 구매를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 사장은 “차 한 대 팔아보려는 알뜰한 마음이 보이지 않아 더 진솔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넘게 타고 다니던 2.5톤 준중형트럭이 고속도로에서 파졌어요. 그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 바로 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직접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당황해 허둥지둥 대차 보험처리부터 폐차처리까지 모든 뒷수습을 도와줬어요. 상황이 다 정리되자 영업사원이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제 엘프로 바꾸시죠.’ 그렇게 엘프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힘과 묵직한...짐 실을수록 이득

문 사장은 엘프를 구입한 뒤로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고 한다. 그가 해준 엘프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문 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엘프의 강인한 힘과 안정감이었다. 술이라는 게 가벼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무겁고 깨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힘세고 안정적인 엘프가 주류 운송에 잘 어울리기 때문.

“엘프는 전에 타던 2.5톤 차량은 물론, 같은 톤급의 경쟁 모델보다 출력이 높아요. 술이 생각보다 무거운 화물이라서 가득 실으면 무게가 꽤 나가는데 힘 좋은 엘프를 구매한 뒤로는 무게 걱정이 없어졌죠. 원래도 일 욕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엘프 덕에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은 짐을 싣고 다닙니다.”

엘프 특유의 묵직한 안정감도 만족감을 더했다. “엘프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낼수록 차가 아래로 짹 깔리는 느낌이 들어요. 고급 대형 세단에서 맛 볼 수 있는 주행감이죠. 급커브 길에서도 차가 기울거나 미끄러지지 않는데다 디스크 브레이크 덕에 제동력도 높아서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변속기에 튼튼함까지...역시 “돈 버는 트럭”

하루에 400km씩 달리는 문 사장에게 엘프 트럭의 스무더 자동화변속기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잘 가고 잘 서는데다 변속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연비도 수동 차량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돈 값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

여기에 내구성이 높아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든다. 문 사장은 지난 2년간 차량 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 교체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몇 번 찾은 게 전부다.

“자동화변속기 덕분에 몸 편하니 옛날보다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차량이 워낙 튼튼해 잔고장 하나 나지 않아 수리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도 없으니 ‘돈 버는 트럭’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문 사장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물류센터를 찾는다. 이런 생활이 10년도 더 됐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누구보다 성실하게’가 좌우명이다. 문 사장은 “예전 차량이 그랬듯 엘프로 완전히 파질 때까지 타고 싶다.”며 “그런데 차가 워낙 튼튼해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튼튼한 새시에 좋은 특장자재... 고객들 이어지죠”

엘프의 眞價는 특장변신

예일특장(주) 박석희 대표

“그야말로
돈이되는
트럭이네!”

엘프 특장으로 관찮은 업체 어디 없을까. 수원지역을 담당하는 이스즈 트럭 딜러는 신차 판매 시 고객에게 늘상 추천하는 특장업체가 있다. 바로 예일특장(주)이다. 엘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스즈와 인연을 맺어온 예일특장.

이 특장업체는 내구성과 경제성하면 엘프만한 3.5톤 트럭이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날개(탑)를 달아주면 그야말로 물류운송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 차주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돈이 되는 트럭'이다.



엘프는 좋은 특장 만나야

예일특장은 2008년부터 냉동탑, 내장탑, 윈바디 등 탑차분야의 특장을 시작해 지난 13년간 수원을 대표하는 특장업체로 성장해 왔다. 현재는 연간 탑차 100여 대 출고하는 중견 특장수준이다.

박석희 예일특장 대표를 만나기 위해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은 엘프 윈바디 출고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인터뷰 틈마다 고객과 전화하며 제품의 품질, 견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던 박석희 대표. 그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니 고객이 믿고 맡겨 주고 있다. 엘프로 처음 특장할 때도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자재를 사용했는데 이게 입소문이 퍼져 현재까지 엘프 특장을 도맡고 있다.”며 엘프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무거운 짐 없어도 꼬떡없는 엘프

박 대표는 엘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새시의 강성함’을 꼽았다. 새시에 특장을 얹는 것은 사람이 무거운 배낭을 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보통 새시들은 특장을 얹다가 조금씩 내려앉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박 대표는 엘프에 특장을 얹어도 새시가 꿈쩍하지 않는다고 거듭 튼튼함을 강조했다.

“특장을 얹어보면 새시가 튼튼한지 약한지 알 수 있어요. 엘프는 특장을 얹고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제대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저희는 특장 수명을 늘리기 위해 굵은 자재를 사용하는 편인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특장차를 출고한 엘프 고객도 중량짐을 실어도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엘프는 특장을 위한 최적 규격이 갖춰져 인증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3.5톤 엘프 기준으로 일반 모델은 파렛트 8개, 초장축 모델은 10개를 적재하고도 넉넉하다는 것. 여기에 실내 등을 켜는 부분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튜닝하거나 윈바디를 열기 쉽게 만드는 등 고객 니즈에 맞춰 특장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이라고 박 대표는 전했다.

“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차주들의 생필품이자 작업 공간이잖아요. 그럴수록 차체가 튼튼하고 오래 운용할 수 있는 트럭을 구매하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특장업체를 찾을 때도 ‘자재로 장난치지 않는 곳, 꾸준히 A/S가 잘 되는 곳’만 찾아도 만족스러운 차량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일특장은 특장 제작을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전에 사흘에 한 대꼴로 특장차를 뽑아냈다고 자랑한 업체 대부분이 문을 닫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일특장은 납기일에만 맞춘 빠른 결과물보다는 ‘좋은 자재로 오래 운용하는 트럭’으로 승부하고 있다. 창업부터 지금까지 좋은 자재만을 고집해온 예일특장은 튼튼한 특장새시의 ‘엘프’를 만나 비상(飛上) 중이다.